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규제 개선 ETF·선물 출시 등 개방화 나서

환경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위탁거래 도입 등 단계적 확대
이월 제한 판매량 1배 → 3배
상쇄배출권 전환 의무기한 완화

온실가스배출권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던 규제가 개선된다. 소수 기업만 참여하던 배출권 거래 시장이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적 시장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그간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 또 “특히 최근에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톤당 7020원)에 도달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했다”며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거래를 도입하고, 금융기관·개인 등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금융상품(ETN: 상장지수증권, ETF: 상장지수펀드) 등의 출시로 투자를 유도하고, 위험 관리를 위한 선물시장도 개설하게 된다. 환경부는 “유럽연합 등 해외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금융상품은 이미 국내에 출시되어 거래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장 본연의 기능을 왜곡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운을 저해하던 배출권 이월 제한과 상쇄배출권의 전환 의무기한은 합리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배출권이 남은 기업의 이월 물량을 당초 판매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한다. 또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도 부족량보다 더 매수하여 이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온실가스 감축도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출권 시장을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기후분야 산업 육성의 계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정부·금융사, 퇴직연금 인지도 제고 나서

홍보·퇴직연금 돌려주기·가입 독려

정부와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 금융회사(은행·보험·증권업 등) 20곳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석자들은 이른바 ‘IR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RP는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협력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Introduce의 첫 글자를 딴 I프로젝트는 ‘국민들에게 퇴직연금 알리기’이

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금융회사가 함께 퇴직연금 홍보 콘텐츠 및 공익 광고 등을 제작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달부터 12월까지 TV광고와 캠페인송,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R(Return) 프로젝트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돌려주기’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1250억원 규모, 고용부 추산)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P(Promote)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에 퇴직연금 가입 독려하기’이다.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0%인 반면 30~299인 사업장은 78.1%,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로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이고 연금이야말로 오랜 시간 검증된 탄탄한 노후수단”이라며 “연금준비는 절대로 지체되거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국내산 밤꿀, 선천면역·면역세포 4배 이상 증가

농촌진흥청-한의학연구소
항바이러스 효과 밝혀

국내산 밤꿀이 인체의 선천면역 인자와 면역세포를 4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한국한의학연구원(최장기 박사 연구팀)과 국내산 밤꿀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연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밤꿀은 6월 중순에 생산되는 벌꿀로 진한 갈색을 띠며 강한 향과 약간의 쓴 맛이 특징이다. 예부터 피로 해소에 좋고 항균 효과가 뛰어나며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져 민간에서 많이 이용됐다.

우선, 면역세포를 이용한 실험 결과, 밤꿀이 인플루엔자 에이(A) 바이러스 감염을 62.2%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밤꿀을 먹이지 않고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쥐는 감염 후 6일 만에 모두 죽었으나 2주간 매일 국내산 밤꿀(600mg/kg)을 먹인 쥐는 60%가 생존



밤꿀.

/농진청

했다. 인플루엔자A는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사람에게 발병하는 인플루엔자 중 가장 흔한 유형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일반적으로 체중이 감소하게 되는데, 밤꿀 처리군의 경우 무처리군보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체중 감소도 17.3% 완화됐다.

또 밤꿀을 먹인 쥐의 혈청과 면역세포 생성조직인 비장에서 각각 ‘인터페론 베타’ (IFN-β, 선천면역 관련 단백질)의 발현과 ‘NK세포’ (자연살해세포, 선천면역을 담당하는 혈액 속 백혈

구의 일종)의 활성을 평가한 결과, 인터페론 베타는 4.3배, NK세포 활성은 4.6배 증가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이러스 단백질이 발현되고 폐 조직에서 염증반응이 일어나 폐 무게가 늘어난다. 그러나 쥐에 2주간 밤꿀을 먹인 후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결과, 정상 쥐와 비슷하게 폐 무게가 감소했고 폐 조직의 염증 수치도 정상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밤꿀이 선천면역 인자인 인터페론 베타의 발현과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성을 높여 기존의 면역력을 높여줌으로써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반응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특히 밤꿀이 선천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밤꿀 속 키누렌산(Kynurenic acid) 성분배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 키누렌산은 밤꿀 1kg 당 1168mg이 들어있는데, 이는 매우 높은 함량이다. 벌꿀 생산량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까시꿀을 포함해 다른 꿀에선 키누렌산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휴대용 빔프로젝터 성능 제각각 제품 간 밝기 최대 2.6배 차이

소비자원, 주요 브랜드 7종 비교
밝기, 샤오미 제품 388안시루멘
프로젝터매니아 등 표시값 미달
삼성전자, 음질·배터리 시간 우수

크기와 무게를 줄여 휴대성을 강조한 휴대용 빔프로젝터의 밝기와 음향, 배터리 사용시간 등 주요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선호도가 높은 주요 브랜드 휴대용 빔프로젝터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벤큐(모델명 GS50), 뷰소닉(M2e), 삼성전자(SP-L SBP3LAXKR), 샤오미(M055MGN), LG전자(PF50KA), 제우스(Zeus A 1000N), 프로젝터매니아(PJM-MINI 9) 7종이다.

시험평가 결과, 명암비·색정확성·색재현성·밝기균일성 시험결과를 종합한 영상품질 평가에서는 벤큐·삼성전자·샤오미·LG전자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제품도 양호한 수준이었다.

밝기는 제품 간 최대 2.6배 차이가 났고, 표시값에 미달하는 제품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샤오미 제품이 388안시루멘으로 가장 밝았고, 프로젝터매니아 제품은 152안시루멘으로 가장 어두웠다. LG전자·제우스·프로젝터매니아 3개 제품은 밝기 실측값이 제품 표시값 대비 약 3.2배~6.5배 미달했고, 뷰소닉·삼성전자 2개 제품은 국제기준 단위인 안시루멘으로 밝기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음을 왜곡없이 재생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음향품질 시험평가에서는 벤큐·삼성전자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뷰소닉·샤오미 2개 제품은 ‘양호’, LG전자·제우스·프로젝터매니아 3개 제품은 ‘보통’ 수준 평가를 받아 제품 간 성능 차이가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비자선호도가 높은 휴대용 빔프로젝터 7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영상품질과 음향품질·밝기·배터리 사용시간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외부 전원 공급 없이 배터리를 연결해 사용가능한 시간은 삼성전자 제품이 3시간3분으로 가장 길었다. 벤큐·LG전자·제우스·프로젝터매니아 4개 제품은 기본모드 작동 조건에서 실측 사용시간(1시간30분~1시간50분)과 제조사 표시기준인 저전력모드 사용시간(2시간30분~3시간) 간 차이가 컸다. 샤오미 제품은 배터리 연결 시 간헐적 꺼짐 현상이 발생해 사용시간 측정이 불가능했다..

소비자원은 “사용 용도와 사용 공간을 고려해 적절한 밝기, 화면 크기 대비 투사거리, 배터리 사용시간 등을 갖춘 제품을 선택하는게 좋다”며 “아외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배터리 사용시간이 긴 제품을 선택해야하고, 영화 한 편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충분한 밝기로 최소 2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연구기관 9곳, 온실가스 관측연구 협력 강화

환경과학원, 기관 5곳과 신규 협약

국립환경과학원이 오는 2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8개 연구기관과 온실가스 관측분야 연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지난 2021년 7월 국립산림과학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국립생태원, 충남 보건환경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기관 5곳이 신규로 참여한다.

총 9개 연구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관측 기술과 부문별·지역별 관측 결과의 공동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 연구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관측(모니

터링) 지점 운영 및 강화 △측정자료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관련 연구성과 공유 및 활용을 위한 학술토론회(세미나·워크숍) 공동 개최 등이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약으로 공동연구 분야를 기존 도심지역 배출원 특성 연구에서 전국 온실가스 특성 연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원·흡수원 특성 연구와 온실가스 관측 방법론 개발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과학기반 탄소중립 추진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과학기반의 탄소중립 정책지원을 위해 온실가스관측망 구축,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온실가스 동위원소 분석 및 활용 체계 구축 등 온실가스 관측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